

의 여섯 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다. 예부터 수질이 탁월하여 전통한지를 특산물로 생산하였다.

2. 마을의 역사

‘배씨 터전에 손씨 골매이’라는 향언으로 미루어 흥해 배씨가 처음 마을을 개척하고, 이어 평해 손씨가 터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주민들은 배씨 이전에 안성 이씨가 먼저 들어오고 손씨보다 경주 이씨가 먼저 들어왔다고도 한다. 1765년 무렵에 강원도 평해군 원서면 선미리에 속했으며, 1912년에 외선미리로 개명했다.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로 편제되고,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1리로 편제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46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손씨(平海孫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금장산[金藏山; 848.4m]

온정면 외선미리와 매화면 길곡리,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와 경계를 이루는 산(山)으로 산세(山勢)가 험하며, 금(金)을 감추고 있다는 전설이 전한다.

2) 닥종이 공장

1900년 초까지 전통한지인 닥종이를 생산하였다. 품질이 좋기로 이름났으며, 닥종이 공장인 지통은 중간모테지통, 도랑건너지통, 웃지통의 세 곳이 있었다.

제20절 외선미2리(外仙味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외선미2리의 속명은 원마 또는 원촌이다. 마을에 원님이 묵고 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고 전하며, 조선조에 평해에서 영양군으로 이어지는 큰길이 현존하며, 이 길은 구주령 옛길로 이어진다. 당시 이 마을의 서쪽에 다시원(多施院)이라는 역원이 있었다.

농업기반공사가 조성한 댐이 있다. 동쪽은 선구1리와 접(接)하고, 서쪽은 구슬(珠)령 고개와 옥녀(玉女) 무덤이 있으며, 남쪽은 백암산(白岩山), 북쪽은 금장산(金藏山)이 있다. 외선미2리는 구주령[구슬령] 길목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합수나들을 경계로 선구2리와 닿아 있으며, 서쪽은 구주령을 경계로 영양군 수비면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막인재를 경계로 선구1리와 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새재를 경계로 매화면 길곡과 접한다. 금장산과 금정산에서 발원하는 외선미천이 동서로 흘러 선구2리 문곡을 지나 광품천으로 들어간다. 마을 앞에 미륵들이 펼쳐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다. 구주령 계곡을 타고 이어지는 구주령 옛길의 원형이 많이 남아있다.

2. 마을의 역사

1420년(세종 4)에 배씨(裴氏)가 마을을 개척할 당시 산수(山水)가 아름다워 신선(神仙)이 놀던 계곡이라 하여 선계(仙溪)라 하다가 1456년경에 일월산(日月山) 스님이 마을을 왕래하면서 금장산(金藏山) 청수녹수(淸水祿水)를 마시고 물맛이 신선하다 하여 선미(仙味)라 하였다 한다. 1765년 무렵에는 강원도 평해군 원서면 선미리에 속했으며, 1912년경에 원서면 외선미리로 개명되었다.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로 편제되었다가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2리로 재편되었다. 흥해 배씨와 평해 손씨, 안동 권씨, 평해 황씨 순으로 입향했다고 전해진다.

3. 가구 분포

총 34세대가 거주하며 경주 이씨(慶州李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구주령의 13바위

영양군 수비면으로 이어지는 구주령에 있는 풍광이 수려한 열세 개의 바위이다. ‘도적바위’, ‘생망암’, ‘선채암[부채바위]’, ‘인장암[도장바위]’, ‘재목암[재먹바위]’, ‘풍취혈[바람구멍바위]’, ‘비수암’, ‘문두암’, ‘마두암[말머리바위]’, ‘연비암[수리바위]’, ‘문천암[문너미바위]’, ‘상광암[위넓적바위]’, ‘하광암[아래넓적바위]’이다. 비수암에는 평해군수를 역임한 권준과 신치응

의 영세불망비가 음각되어 있다.

2) 비석거리

원마에서 외선미1리 방향 100m 지점에 비석거리가 있다. 3기의 비석이 일부 훼손된 채 현존한다. 평해군수를 역임한 심능무와, 이종규, 심의완의 영세불망비이다.

3) 인(印) 바위와 옥녀(玉女)무덤

1592년(선조 25)에 평해군수가 가족을 동반하여 한양으로 상경(上京)하면서 구주령(九珠嶺)에 있는 바위 뒤에 구멍을 뚫고 원님의 직인(職印)을 숨겨 두었다 하여 인(印)바위라 하였다. 또 구주령에서 잠시 쉬던 중 원님의 딸 옥녀(玉女)가 가마 안에서 갑자기 사망(死亡)하였으므로 양지바른 곳에 안장(安葬)코자 하였으나, 시체가 가마 안에서 떨어지지 않아 현장(現場)에다 무덤을 썼는데, 이 무덤을 옥녀봉이라고 부르며 현존한다.

제21절 조금1리(操琴一里)[속명 : 하조금(下操琴)]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북골과 경계로 덕산3리 한실마을과 닿아있으며, 무더니재를 경계로 덕산1리 검월과 닿아있다. 서쪽으로는 마을 앞 도꾸재를 경계로 조금2리와, 남쪽으로는 큰미리재를 경계로 영해면 창수, 북쪽으로는 영양군 수비와 연,접해 있다. 마을은 원수곡과 금계동으로 나뉘어 있다. 금계동은 ‘옥녀산발형’이라고 인식하며 ‘옥녀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거문고를 타는 형국’으로 여긴다. ‘홍건적의 난을 피해 어린 조카를 데리고 피난을 온 고모가 쌓았다’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고모산성(姑母山城) 흔적이 현존한다. 원수곡은 의성 김씨가 처음 개척했다고 전하며 ‘배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2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약 400년 전에 창녕 조씨(昌寧曹氏)가 개척할 때, 이 마을이 옥녀(玉女)가 거문고를 잡고 노래 부르는 형태라 하여 마을 이름을 조금(操琴)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 의병대장(義兵大將) 원수(元帥)가 의병(義兵)을 거느리고 골(谷)에 오래 주둔하였으며, 그로부터 60년 후에 의성 김씨가 이곳을 개척하면서 의병대장 원수(元帥)의 이름을 따서 원수곡(元帥谷)이라 불러오고 있다.